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개발과 효과

김 선 아¹⁾ · 박 정 화²⁾ · 이 현 화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치료 일정이 빠르게 단축되는 의료 환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서로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들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지식만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교과목은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개개인과 교수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의사소통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의사소통 교과목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하

여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의 구체적인 학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O'conner, Albert와 Thomas(1999)는 정신사회 영역의 간호중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시범을 보일 뿐 아니라 교수와 동료들과의 Feed-back을 통해 자신의 간호기술을 분석해보고 VTR 촬영을 하여 이를 반복 시청함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생과 교수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통합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실에서의 경험을 전문직 간호의 좀더 폭넓은 세계로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Arnold & Boggs, 1999), 스스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이 앞으로 간호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치료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려면, 의사소통의 규범을 자발적으로 익힐 수 있고 타인의 장점을 모방할 수도 있는 집단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교수와 학생 사이의 Feed-back뿐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각각이 동시에 의사소통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작게는 의사소통 기술을 직접 사용하면서 익힐 수 있고 크게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전공 영역에 비하여 많은 이론 학점과 실습 시간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Godbey & Courage, 1994; Williams, Hagerty, Murphy-Weinberg & Wan, 1995), 또 생물학적으로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주요어 : 집단 프로그램, 의사소통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실 부교수, 2) 연세의료원 정신과병동 간호사, 3)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생

투고일: 2003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13일

있는 여성들로 간호대학생 집단이 구성되고 있다(Williams et al., 1995).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솔직히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에 의한 사랑, 온정, 인정감을 지각하게 되고 자기 존중감과 가치감을 가지게 되며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므로(Lee, 1998), 간호대학 교과과정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나 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어 대학 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연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과과정 내에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 활동을 통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어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새로운 대응 기술을 습득하여 삶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Williams et al., 1995), 궁극적으로 의료제공의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공간적인 지원 등 많은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의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집단 프로그램이 통합된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하였다.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및 우울 정도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개발하여 그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강의 위주의 의사소통론 교과목과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기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2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4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과 강의를 통합한 교과목을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와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료수집 시기를 시차를 두어 측정하였고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시행된 처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대조군 : 2002학년도 1학기 의사소통론(2학점) 교과목을 교과계획안에 의해 매주 2시간씩 15주 동안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실험군 : 2003학년도 1학기 의사소통론(2학점) 교과목의

Control (nursing students taking a communication course in 2002)		Experimental (nursing students taking a communication course in 2003)	
X1	Yc2	Ye1	Ye2
X1 : existing communication lecture	Yc2 : post-test	Ye1 : pre-test	
X2 :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the group program for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Ye2 : post-test			

<Figure 1> Research design

진행은 15주 중 9주간은 2002학년도 강의내용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6주간은 매주 1시간의 강의와 90분씩 6회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한 집단은 9-12명의 수강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총 8개의 집단에 연구자 세 명이 각각 해당하는 집단에 들어가 매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2003학년도 1학기 서울의 일 간호대학의 2학년 학생 82명이며, 대조군은 2002학년도 1학기 동일한 대학의 2학년 학생 108명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표본추출은 임의표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3월에서부터 2003년 6월까지였고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주고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대조군의 사후조사를 위하여 2002년 6월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의 회수율 증가와 자료수집 방법 및 시기와 관련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회수하였다. 실험군도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2003년 3월에 본 연구의 도구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6월에는 사후조사를 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된 실험군 75개, 대조군 103개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2 test, t-test, ANOVA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처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변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실험군 내에서의 사전 사후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변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실험군 내에서의 사전 사후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은 Haynes-Clements(1980)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Lee(199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과 Kang(1996)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 증진 훈련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내용을 9주간의 강의식 교육과 6주간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9주간의 강의는 Y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개발한 「의사소통론」 교과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6주간의 집단 프로그램에는 강의 1시간과 집단 프로그램 90분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프로그램의 제목은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의 목표는 (1)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2)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이해한다, (3) (치료적)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의 세 가지였다. 집단 프로그램은 강의 주제와 동일한 내용을 집단 프로그램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여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체 6회기 동안 실시되었다.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에서와 같다.

1회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대인관계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영향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정하였다. 2회는 자신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찾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고, 3회에서는 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언

<Table 1> Group program for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Session	Goal	Contents
1	Assess Communication skill	- learning the impact of communication in human relationships - sharing motivation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
2	Identify problem in communication	- describing conflict situation related to communication in daily life -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3	Develop an action plan	- dealing with feeling -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4	Apply new strategy in daily life	- discussing new approach in conflict situation - exercising changed strategy for group members
5	Recognize change	- giving feed-back among group members - explaining change in daily life
6	Improve communication skill	- re-evaluation communication skill - analyzing strength and weakness

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4 회부터는 갈등상황에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고 5회에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마지막 6회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전반적인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졌다.

● 결과 변인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질문지와 결과변인으로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된다.

•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에는 성별, 나이, 종교, 의사소통 관련 과목 수강 및 훈련경험 유무 등이 포함되며 질문지는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

대인간 의사소통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iennu(1971)이 제작한 것을 Kang(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며, 의사소통의 유형, 특성,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표현의 명확성', '경청', '자기노출', '자아개념', '감정처리'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고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902로 나타났다.

• 대인관계 척도

본 척도는 Schlein, Guerny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un(1980)이 번안하여 Chun(1995)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체 25개 문항으로 된 5점 Likert 척도이며, 하위영역으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Chun(1995)이 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8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768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자존감의 측정은 Oh(1999)의 연구에서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 58문항을 우리 문화와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8개의 허구문항을 포함하여 58개의 문항으로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영상을 기술하도록 한 짧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에서 '나와 전혀 다르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당시 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Cronbach'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600이었다.

• 우울

우울은 Beck(1978)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용하였다. BDI는 Oh(1999)의 논문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우울증상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자가 보고식 질문지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개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4점 척도(0~3점)의 도구로 최저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036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실험군 간호대학생들의 학년 구성은 2학년이 82.2%, 3학년이 17.8%이었고, 대조군의 경우는 2학년이 63.7%, 3학년의 36.3%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실험군에서 2.7%, 대조군에서 4.9%이었다. 거주 형태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69.3%, 55.9%로 가장 많았다. 의사소통관련 교과목의 수강경험에 있어서는 실험군의 14.3%, 대조군의 14.9%가 과거에 수강경험이 있었고 의사소통 관련 프로그램의 훈련경험에서는 실험군의 2.9%, 대조군의 3.0%가 경험이 있었는데 두 집단 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

● 가설 1

가설 1인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사후 대인간 의사소통 총 점수는 평균 96.67(SD=7.73)점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평균 94.00(SD=8.2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였으므로(p<.05)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표현의 정확성에 있어서 실험군은 평균 19.82(SD=2.02)점, 대조군은 평균 19.06(SD=2.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p<.05), 경청의 경우 실험군은 평균 19.94(SD=2.40)점, 대조군은 평균 19.41(SD=2.35)점이었고 자기노출의 경우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17.74(SD=2.20), 대조군은 평균 17.83(SD=1.92)점으로 자기노출에서는 대조군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두 영역의 점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emographic Characteristic		Experimental (n=75)	Control (n=103)	t or χ^2	p
		n(%) / Mean±SD	n(%) / Mean±SD		
Age (yr)		20.12±1.15	20.88±1.74	-3.464	.001
Gender	male	2 (2.7)	5 (4.9)	.518	.701
	female	71 (97.3)	96 (94.1)		
Grade	sophomore	60 (82.2)	65 (63.7)	7.110	.011
	junior	13 (17.8)	37 (36.3)		
Religion	Protestant	37 (49.3)	46 (44.7)	4.699	.320
	Buddhist	3 (4.0)	12 (11.7)		
	Catholic	14 (18.7)	13 (12.6)		
	Disbelieved	18 (24.0)	29 (28.2)		
Residence	home	52 (69.3)	57 (55.9)	9.145	.166
	relatives' home	1 (1.3)	2 (2.0)		
	dormitory	13 (17.3)	28 (27.5)		
	living alone	2 (2.7)	4 (3.9)		
	living with friend(s)	0 (0.0)	4 (3.9)		
	living with sibling(s)	5 (6.7)	7 (6.9)		
Monthly family income (Won)		321.21±178.97	310.97±190.01	.258	.797
Taking lessons in communication in the past	yes	10 (14.3)	15 (14.9)	.011	.918
	no	60 (85.7)	86 (85.1)		
Undergoing communication training in the past	yes	2 (2.9)	3 (3.0)	.000	.997
	no	66 (97.1)	98 (97.0)		

하지만 자아개념의 경우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20.08(SD=2.21) 점, 대조군이 평균 19.34(SD=2.39)점이었고(p<.05), 감정처리의 경우 실험군이 평균 19.23(SD=2.47)점, 대조군이 평균 18.34(SD=2.40)점으로(p<.05) 두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 내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가 평균 93.17(SD=8.51)점에서 96.67(SD=7.73)점으로 약 3.5점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 하부영역들의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표현의 정확성은 약 0.97점(p=0.000), 경청은 약 0.68점(p<.05), 자아개념은 약 0.58점(p<.05), 감정처리는 약 0.82점(p<.01) 증가했는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였다. 반면 자기노출은 약 0.44점 증가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가설 2

가설 2인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대인관계 척도에 따른 사후 대인관계 능력은 실험군의 경우 평균 92.95(SD=9.61)점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평균 90.12(SD=12.27)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아니었으므로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실험군 내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했을 때 대인관계 능력은 평균 88.51(SD=11.16)점에서 92.95(SD=9.61)점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

● 가설 3

가설 3인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실험 처치 후 자존감은 실험군이 평균 197.19(SD=18.99)점으로 평균점수가 192.67(SD=22.12)점인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므로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실험군 내에서 자아존중감의 사전 평균점수가 191.07(SD=18.92)점에서 사후 197.19(SD=18.99)점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가진 증가를 보였다(p=.000).

● 가설 4

가설 4인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방법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과목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의 가설검정 결과도 <Table 3>에 나타나 있는데, 실험군의 경우 우울의 평균점수가 6.60(SD=5.32)점

<Table 3> Effect of the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ionship change, self-esteem, and depression score within and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s	Experimental (n=75)			Control (n=103)		tb
	Observed Range	Mean±SD	ta	Observed Range	Mean±S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e-test	69~109	93.17± 8.51	-4.038**	76~114	94.00± 8.20	2.127*
post-test	79~109	96.67± 7.73				
Precision of expression						
pre-test	14~ 23	18.85± 2.24	-3.856**	12~ 24	19.06± 2.37	2.293*
post-test	15~ 23	19.82± 2.05				
Listening						
pre-test	12~ 24	19.26± 2.47	-2.398*	12~ 24	19.41± 2.35	1.472
post-test	11~ 24	19.94± 2.40				
Self Disclosure						
pre-test	12~ 23	17.30± 2.24	-1.898	13~ 21	17.83± 1.92	-.264
post-test	13~ 23	17.74± 2.20				
Self Concept						
pre-test	11~ 24	19.50± 2.47	-2.125*	12~ 24	19.34± 2.39	2.083*
post-test	16~ 24	20.08± 2.21				
Emotional Control						
pre-test	12~ 23	18.41± 2.55	-2.860**	12~ 24	18.34± 2.40	2.405*
post-test	13~ 23	19.23± 2.47				
Relationship Change						
pre-test	63~113	88.51±11.16	-5.028**	61~114	90.12±12.27	1.725
post-test	73~118	92.95± 9.61				
Self-esteem						
pre-test	149~231	191.07±18.92	3.195**	137~247	192.67±22.12	1.455
post-test	152~239	197.19±18.99				
Depression						
pre-test	0~ 21	8.28± 4.41	-3.856**	0~ 34	8.81± 6.71	-2.438*
post-test	0~ 32	6.60± 5.32				

ta: paired t-test tb: unpaired t-test * p<.05 ** p<.01

로 우울점수가 평균 8.81(SD=6.71)점으로 더 높게 나타난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5)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 실험군 내에서 사전 우울은 평균 8.28(SD=4.41)점에서 사후 6.60(SD=5.32)점으로 역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

논 의

본 연구는 Y대학교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존감, 우울 점수를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학생들의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이 기존의 의사소통론 교과목보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가 평균 96.67(SD=7.73)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94.00(SD=8.2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보다 약 2.7점 높게 나타난 것과(p<.05) 집단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 학생들의 점수가 약 3.5점 증가한 것으로(p<.01) 설명될 수 있다. 이는 Kang(1996)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이 실험군에서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를 약 3점 향상시킨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면서 그 연구에서는 실험군 점수가 대조군과의 사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새로운 교과목의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는 Kang(1996)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여자 성인의 대인간 의사소통 평균점수가 90.09(SD=12.14)로 나타난 것보다 약 6점 정도 높은 96.67(SD=7.73)점이었다. 또 사전 평균 점수에 있어서도 간호대학생들이 약 6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는 20대 초반의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간호대학생들이 30, 40대 중년 여성들보다 의사소통의 대상 및 화제가 다양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피드백에 유연한 것이 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인간 의사소통 하부영역 중 표현의 정확성은 대조군보다 약 0.76점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활동 전후에 있어서도 약 1.0점에 가까운 향상을 보였다. 이는 Kang(199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6회에 걸친 훈련기간 동안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피드백과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내적 생각과 감정 등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대인간 의사소통의 하부영역 중 자기노출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실험군 내에서는 점수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고 대조군보다도 사후에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Kim(1997)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기법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기노출에 있어서 유의 있는 향상이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집단 프로그램에서 자기노출을 실제로 시도해 본 결과 신뢰감과 집단의 분위기가 친밀한 집단일수록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인 경우는 다른 집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집단간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수업의 일련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었고 집단의 크기가 9~12명으로 진행되어서 자기노출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 점수에 있어서는 Chun(1995)의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한 결과 실험군에서 대인관계의 유의한 향상이 있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의 효과를 본 Kim(2000)의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들은 기존의 강의식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평균 92.95(SD=9.61)점으로 약 2.8점 더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큰 유의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실험군 내에서의 전후 변화에서는 약 4.4점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00$) 새 의사소통론 교과목의 운영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대학생들 대부분이 2학년 학생들로 전공공부를 갖 시작하여 간호학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기초지식의 습득과 병원실습을 앞두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 동아리 위주의 대

인관계를 맺고 있던 1학년 때와는 다른 대인관계의 변화된 범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전공과 연관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새로운 대인관계로 인하여 학교 생활이 위축될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 더욱 대인관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같은 과 학생들과의 소집단 활동이 각자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 교과목 운영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스스로의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향상과 함께 내적인 자아존중감의 향상, 그리고 우울정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Lee(1998)의 정신질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연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기존의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보다 자존감의 평균 점수가 약 4.7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우울점수에 있어서 대조군보다 약 2.2점 낮은 평균 6.60(SD=5.32)점을 나타내면서 활동 전보다도 약 1.7점 감소된 평균 점수를 보인 것은 Lee(1998)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우울 점수가 대조군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Kim(199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기법 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우울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있는 차이($p<.01$)로 감소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우울정도의 감소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 활동 속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즉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집단활동을 진행하면서 각 집단원들이 스스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약점을 객관화하고 강점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평소에 흔히 생겼던 대인관계에서의 오해가 줄어드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집단 속에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함께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새로이 향상되면서 우울정도도 자연스럽게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걸으며 드러나는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본 프로그램이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는 대조군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다. 2002학년도 1학기 의사소통 강의가 진행된 시점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어 대조군의 사후 검사만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수자에게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 위험학생을 발견하고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의 교과목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덧붙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Y 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실험 확산 효과를 막기 위해 실험군은 2003년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임의표출하였고, 대조군은 2002년에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임의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관계 변화, 자존감, 우울 점수를 통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효과를 기존 교과목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운영하였을 때 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점수가 평균 96.67(SD=7.73)점으로 기존의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평균 94.00(SD=8.20)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p<.05$). 대인간 의사소통의 하부영역에 있어서는 표현의 정확성, 자아개념, 감정처리에 있어서 실험군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05$),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이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실험 처치 후 우울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군의 학생들이 평균 6.60(SD=5.32)점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평균 8.81(SD=6.71)점으로 나타나($p<.05$)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이 유의하게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집단 프로그램 전후의 실험군 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관계 변화, 자존감, 우울 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고, 대인간 의사소통의 하부 영역에서는 표현의 정확성, 경청, 자아개념, 감정처리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집단 활동에 있어서 자기노출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변화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자기노출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7~8명 정도의 적절한 집단 크기의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대조군의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의 전후설계를 가진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의 효과는 기존의 강의식 의사소통론 교과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프로그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및 시간과 장소의 뒷받침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 연구도구로 사용된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 및 대인관계 척도의 각 문항의 변안된 의미가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를 통해 전체 도구 및, 하부 영역과 그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rnold, E., & Boggs, K. U.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for nurses* (3rd ed.).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 Chun, S. K. (1995).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Seoul.
- Godbey, K. L., & Courage, M. M. (1994). Stress-management program: intervention in nursing student performance anxiety. *Arch Psychiatr Nurs*, 8(3), 190-199.
- Kang, K. J. (199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Master's thesis, Th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he South of Kyungsang Province.
- Kim, M. Y. (2000).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Hannam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Kim, S. H. (1998).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interpersonal improvement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The Dankook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E. J. (1991).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for enha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G. Z. (1998). The Effects of the Group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In the Group of Mothers with Children of Mental Disorders. *J Korean Acad Nurs*, 28(3), 801-809.
- O'Connor, F. W., Albert, M., & Thomas, M. D. (1999). Incorporating standardized patients into a psychosocial nursing practitioner programs. *Arch Psychiatr Nurs*, 13(5), 240-247.
- Oh, I. O. (1999). *The effect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on the depression, self-esteem of college women*.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Williams, R. A., Hagerty, B. M., Murphy-Weinberg, V., & Wan, J. (1995).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Arch Psychiatr Nurs*, 9(5), 269-27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Kim, Sunah¹⁾ · Park, Jung-Hwa²⁾ · Lee, Hyun-Hwa³⁾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R.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3)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develop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a group program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b)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ionship chan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82 nursing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108 nursing students. Both groups each took communication courses from March to June, 2002 and 2003. A group program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was conducted for each 8 subgroups of the experimental group for 90 minutes once a week during the 6 weeks, while the existing communication lecture was conducted for the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post-tested after the intervention for verifying the difference of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also pre-tested for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Result & Conclus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core of the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depression score of the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lationship change and self-esteem scor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depression sco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treatment.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tha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had positive effects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Group practice, Communic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unah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361-8153 Fax: +82-2-392-5440 E-mail: psy0962@yumc.yonsei.ac.kr